환일소식

은 행 나 무

Woon-hwa Educational Foundation

제 9 호

• 발행인 : 김 은 미
• 발행처 : 환일고등학교
• 주 소 : 서울시 중구 환일길 47

http://hwanil.hs.kr

2015년 9월 24일 목요일

환일고등학교 68회 생일 맞이하다

1947~1974(중 · 고등학교 동 · 하복)

1974~1988 (중 · 고등학교 동 · 하복)

2015년 9월 26일 환일고등학교가 68회 개교기념일을 맞이한다. 1947년 설립자 김예환박사께서 운화 김영순 장로와 함께 사재를 바쳐 재단법인 균명중학교를 설립하고 6년제 24학급을 인가 받아 같은 해 9월 26일에 개교한 것이 지금의 환일고등학교의 시작이다. 1973년에 김예환 박사께서 이사장에 취임하시고, 1974년 균명중.고등학교를 환일중.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이후 '경천, 애국, 애인' 이라는 교훈 아래 교육력 제고에 부단히 노력하여 수능 만점자를 배출 하는 등 수많은 교육적 쾌거를 이루었다. 2012년에는 김은미 박사님께서 이사장에 취임하셨다. 환일고등학교는 고교교육력제고 창의경영학교 교육부장관상, 2012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람회 교육부장관상, 그리고 교육과정 우수학교로 2011~2013년 3년 연속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표창을 받았으며, 2014년에는 교육과정 우수학교로 서울특별시교육감 표창을 받았다. 그리고 43년 전통의 사격부가 각종 대회에서 전국 최강임을 입증하며 승승장구 하고 있다.

68회 개교기념일을 맞아 9월 24일에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열린음악회가 열릴 예정이다. 각계로 뻗어나가 활동하는 동문들, 본교 학생들과 교사들, 지역 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하며 하나 되는 시간을 기대해 본다.

환일의 개교기념일을 축하하면서

교장 김은미

어느덧 일 년이 또 지나가 68회 개교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 어느새 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서 개교기념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우신 환일의 정신을 되새겨보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성심을 위로하며 주님의 뜻을 펼치는 환일이 되길 빕니다.

작년 경천관의 개관으로 다시 한 번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환일이 되고자 다짐했습니다. 하느님을 으뜸으로 삼고, 모든 일의 주관자 되게 합시다.

봉학산 마루에 깃든 환일의 정신을 세계만방에 펼치우는 우리 환일 학생들의 보금자리가 되길 빕니다.

새천년, 새 하늘의 열림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왕국, 하느님의 나라가 이 환일 동산에서 영원히 꽃 피우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한 번 개교기념일을 축하합니다.

2-3,5면. 종합소식
4면. 학생회
6면. 신앙칼럼, 독서칼럼
7면. 〈기획기사〉 9월 모평 이후 학습 방법
8면. 동아리 활동
9-11면. 소감문
12. 수상소식

환일, 우리 삶의 표지석

– 운화학원 개교68주년기념일에 부쳐

최상호(고 교사. 시인)

오오,
봉학산 마루의 환한 빛이여
어둔 밤
가시밭길을 헤칠 때
한낮의 돌밭길을 걸을 때
홀연 샘물이 되고
그늘이 되어 준
민족의 오아시스, 68년의 세월

믿음의 눈으로,
저기 한강을 바라보며 꿈을 키우고
갈매빛 북한산을 바라보며
기상을 드높여온 그대들

이제 저 돌계단 틈에 서 있는
은행나무에게서 배우라
찬바람 이기고
쨍쨍 햇볕을 견디며
언제나 꿋꿋이 인내하다가
튼실한 둥치 나뭇잎 사이에서
남몰래 가꾸어 온 황금빛 열매를 내어 주는
헌신의 마음, 겸손의 손길

오오, 환일이여
무슨 일을 하든지 제 1인자가 되라는,
그리하여 최후에 웃는 자가 되라는
우리 삶의
고고한 표지석
경천 애국 애인의 보금자리
봉학산 언덕 위
우리들의 아름다운 표상이여

수상레저 체험활동

2015년 6월 25일(목)에 특성화교육부 주관 하에 대안교실 학생 및 희망학생들이 수상레저 체험활동을 떠났다. 활동에 임하기 전에 수상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레저 활동 방법을 교육 받았다. 수상스키, 플라이 피쉬, 빅마블, 밴드왜곤 등 수상레저 활동의 짜릿한 매력에 빠진 우리 학생들은 학업스트레스에서 잠시 벗어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시원한 시간을 보냈다.

2015 대학전공 심화탐구 프로그램

2015년 7월 9일 ~ 15일까지 일주일동안 정규수업을 마친 저녁 시간에 동국대학교에서 중구청 지원으로 대학전공 심화탐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중구 인문계 5개 학교 학생들이 각 희망하는 전공프로그램을 신청하여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해결하면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는 시간을 가졌다. 기말고사 후 나태해지기 쉬운 기간에 밤늦게까지 졸지 않고, 진지하게 수업 듣는 환일인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성경퀴즈대회

2015년 7월 10일(금)에 본교 강당에서 제36회 성경퀴즈대회가 열렸다. 김철우 전도사님과 박종관 목사님의 사회로 3,4교시는 1학년, 5,6교시는 2학년 순서로 단체전, 왕중왕전이 진행되었다. 이날 강당은 열심히 문제 푸는 학생들과 응원하는 학생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단체전에서 1학년 1등은 7반, 2등은 10반, 3등은 2반이 차지하였고, 2학년 1등은 1반, 2등은 4반, 3등은 10반이 차지하였다. 왕중왕전에서 1등은 하헌재, 황민호, 2등은 김승태, 최희국, 3등은 김영서, 박병민이 차지했으며, 응원상은 1-3, 2-5이 받았다.

전국고교 합창경연대회

2015년 7월 18일(토)에 KBS홀에서 제1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전국고교 합창경연대회에 본교 합창단이 참가했다. 전국고교합창경연대회는 국립합창단이 주최하는 권위있는 대회로 올해는 대회 10주년을 맞아 전국 각 시,도를 대표하는 총13개 고등학교 합창단들이 모여 경연을 벌였다. '주품에, 바람이 불어오는 곳' (지휘 : 탁우빈 선생님, 반주 : 2학년 유철웅)을 연주하여 은상과 부상으로 상금 150만원을 받았다. 본교 합창단은 음악적인 화려한 기교보다 남성다운 발성을 바탕으로 힘 있는 음색을 가지고 서울 최고의 고등학교 남성합창단으로 인정을 받았다.

한여름밤 축구대회

2015년 7월 16일(목) 18시부터 운동장에서 한여름밤 축구대회가 열렸다. 이사장님, 교장선생님, 교감 선생님, 여러 선생님, 학생 및 학부모 100여 명이 참석해서 축구의 열기로 한여름밤의 무더위를 날려버리는 시간을 가졌다. 전체 5팀이 참가해서 1학년 1,2,3반 연합팀과 2학년 올스타 팀이 결승에 올랐고, 1학년 1,2,3반 연합팀이 우승을 하였다.

야간 조명등을 켜고 마음껏 기량을 발휘한 학생들은 학업의 부담을 떨쳐 버리고, 여름방학 방과후학교 수업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학생들은 방학식을 하루 앞두고 1학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학기동안 수고하신 선생님들과 자율학습 감독에 참여하셔서 학생들을 격려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특히 63회 학생회 출범 이후 학생회가 주도적으로 이끈 첫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15 간부수련회

2015년 7월 17일(금)~18일(토)까지 일박 이일 동안 강원도 홍천 대명 비발디 파크로 1, 2학년 2015년 정 · 부회장 및 학생회 임원들이 간부수련회를 다녀왔다. 수상스키, 빅마블, 4인땅콩, 밴드웨곤, 에어헤드 등의 수상스포츠를 즐기고, 짚라인 체험도 했다. 저녁 시간에는 교감선생님께서 준비하신 리더의 자세에 대한 특강을 들으며 리더로서의 자세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숙소에서 간식을 나누어 먹으며 선후배들과 돈독해지는 시간도 보냈다.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라는 무게를 지고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간부학생들에게 휴식 같은 수련회가 되었길 바란다.

국토탐방프로그램

2015년 7월 17일(금)~19(일) 2박 3일 동안 교사 3명, 학생 9명(1학년 2명, 2학년 4명, 3학년 3명) 등 총 12명이 교육부 공모 국토탐방 프로그램 '환일고 덕유산 종주'에 다녀왔다. 무주 설천봉에서 출발해서 향적봉(1,614m, 우리 나라 4대 고봉)을 거쳐 향적봉 대피소에서 1박을 하고, 다음 날 삿갓재 대피소를 지나 남덕유산 정상을 밟은 뒤 영각탐방센터를 통해 하산했다. 총 25km에 이르는 영호남을 아우르는 거대한 산을 지나며 위대한 자연을 만끽하고, 선후배간 끌어주고 밀어주는 등 동료의 소중함을 느낀 소중한 시간이었다.

2015 교내경시대회

2학기 교내경시대회 일정 안내

연번	수상명	시행일자	참가대상	수상비율	주관부(과)
1	제2회 학생특강대회	2015.9.22.(화)	1,2학년	2%	연구부
2	모범상 (선행,효행,봉사,극기, 리더십)	2015.9월	학년별	15%	교무부
3	제1회 조형물대회	2015.10.15.(목)	1,2학년	20%	창체계발부
4	제2회 모형항공대회	2015.10.15.(목)	1,2학년	20%	자연과학부
5	학생탐구논문발표대회	2015.10.22.(목)	1,2학년	3%	연구부
6	창의력 산출물 대회	2015.10.24.(토)	1,2학년	20%	자연과학부
7	토론대회	2015.10.31.(토)	1,2학년	2%	연구부(인문)
8	영어단어향상대회	2015.11.2.(월)	1,2학년	4%	영어과
9	제2회 감사기도문쓰기대회	2015.11.23.(월)	1,2학년	2%	선교 · 음악부
10	수리 창의력 대회	2015.11.25.(수)	1,2학년	20%	자연과학부
11	과학 창의력 대회	2015.11.25.(수)	1,2학년	20%	자연과학부
12	제2회 나의 꿈 발표대회	2015.12.2.(수)	1학년	4%	진로상담부
13	영어듣기대회	2015.12.18.(금)	1,2학년	4%	영어과
14	2학기 논술경시대회	2015.12.18.(금)	1,2학년	4%	연구부(인문)
15	영어 포트폴리오대회	2015.12.18.(금)	1,2학년	4%	영어과
16	독서 골든벨	2015.12.21.(월)	1학년	3%	연구부(인문)
17	제2회 경제 사고력 대회	2015.12.22.(화)	2학년	11%	사회과
18	제2회 일본어 향상 대회	2015.12.22.(화)	2학년	5%	일본어과
19	제2회 중국어 향상 대회	2015.12.22.(화)	2학년	5%	중국어과
20	제2회 역사 사고력 대회	2015.12.22.(화)	2학년	20%	역사과
21	성가경연대회	2015.12.23.(수)	1,2학년	학급시상	선교 · 음악부
22	2학기 스포츠클럽	2015.12월 말	참가자	30%	체육교육부
23	2학기 우등상	2015.12월	학년별	5%	교무부
24	2학기 교과우수상	2015.12월	학년별	과목별4%	교무부
25	2학기 그린마일리지	2015.12월	1,2학년	3%	생활지도부
26	졸업특별상	2016.2월	3학년	20%	교무부

63대 학생회 출범

2015년도 학생회 정 · 부회장 선거가 7월 15일(수) 9시부터 본교 대강당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실시되었다. 기호 1번 김창수, 기호 2번 신동건, 기호 3번 한사무엘 총 3명의 후보자들이 열띤 선거 운동과 정견 발표를 통하여 학생들의 표심을 흔들었다. 그 결과 김창수 학생이 423표(40.6%)로 학생회장에 당선되었으며, 한사무엘 학생이 246표(23.6%)로 부학생회장에 당선이 되었다.

63회 학생회 조직도

회장단
김창수(학생회장) 한사무엘(부회장)
학년장
서재현(2학년) 박기원(1학년)
부학년장
주상현(2학년) 임형욱(1학년)
서기
신동건(2학년) 최동현(1학년)
부장단
고재형(기획부장) 이옥구(총무부장)
진우빈(선교부장) 김성재(생활부장)
김우진(자치법정부장) 김부식(예체능부장)
김도형(동아리지원부장) 임영택(봉사부장)
김명조(정보부장) 최승현(환경부장)
박경태(생활안전부장) 하승원(보건부장)
김민석(문예창작부장) 김경일(특성화부장)
안형주(홍보부장)
차장단
조현준(기획차장) 김윤수(총무차장)
김부림(선교차장) 이형철(생활차장)
심재혁(자치법정차장) 고상민(예체능차장)
박건희(동아리지원차장) 이상준(봉사차장)
임채웅(정보차장) 서기현(환경차장)
강태욱(생활안전차장) 김정환(보건차장)
노현우(문예창작차장) 박효진(특성화차장)
이건우(홍보차장)

2015년도 2학기 회장 · 부회장

회장	부회장
▲ 1학년	▲ 1학년
박기원(1반) 박건희(2반)	민지홍(1반) 박지훈(2반)
이상우(3반) 이예찬(4반)	서기현(3반) 박주성(4반)
김채운(5반) 정재홍(6반)	이재준(5반) 김민서(6반)
윤도현(7반) 김진현(8반)	조성헌(7반) 안영태(8반)
김재형(9반) 임형욱(10반)	주형원(9반) 전우영(10반)
문준호(11반)	김호종(11반)
▲ 2학년	▲ 2학년
박상은(1반) 최원철(2반)	노호준(1반) 정우진(2반)
권동현(3반) 박 현(4반)	윤유성(3반) 김도형(4반)
이승훈(5반) 김형식(6반)	이종원(5반) 장우재(6반)
박나현(7반) 정승훈(8반)	정상우(7반) 김성재(8반)
김형찬(9반) 정찬진(10반)	이정훈(9반) 임형욱(10반)
하승원(11반)	정병윤(11반)
▲ 3학년	▲ 3학년
최준호(1반) 장규동(2반)	공영진(1반) 김재민(2반)
송영훈(3반) 이승민(4반)	김민건(3반) 김현기(4반)
이재학(5반) 이창민(6반)	이준희(5반) 이건희(6반)
이승환(7반) 정재필(8반)	신희찬(7반) 최현서(8반)
김한주(9반) 방재한(10반)	이원희(9반) 유정훈(10반)
문경환(11반) 윤은철(12반)	김준영(11반) 강병재(12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학생회장 김창수

환일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2015년도 2학기부터 내년 1학기까지 여러분과 학교를 위해 힘쓸 학생회장 김창수입니다. 우선, 여러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고 미숙한 저를 학교를 위해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믿어주신 사랑하는 환일의 모든 선생님과 선, 후배 여러분께, 그리고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주어진 학생회장이라는 막중한 자리가 조금 부담이 되었지만, 항상 옆에서 지켜봐 주시는 선생님들과 든든한 학생회 친구들, 그리고 제가 앞으로 한 몸 바쳐 도움을 드려야 할 환일의 모든 여러분을 생각하니 무척 설레고 한편으로는 힘이 불끈 솟습니다. ^_^

여러분! 저 학생회장 김창수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하나 소중히 생각하며 여러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학생회 그리고 선생님들과 협의하여 여러분께서 학교생활을 하시는데 있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급식실과 대강당 에어컨 가동문제를 학교에 건의하여 현재 해결이 되었고, 제가 목숨 걸고 이행하겠다던 축제 전일제 또한 학교 측의 허락을 받아 축제당일 부담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급식실 식수대에 물이 잘 안 나오는 문제를 학교에 건의하였고, 또한 곧 있을 봉학마루제에서는 학생회 친구들과 협의하여 E-sports 대회를 포함한 다양한 행사를 실시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모금행사와 같이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뜻 깊은 행사들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는 단 몇 명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의견과 참여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1년, 부회장인 사무엘과 학생회 친구들과 함께 항상 낮은 자세로 여러분과 학교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회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성원과 믿음에 어긋나지 않는 학생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섬김' 의 자세

학생부회장 한사무엘

환일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환일고등학교 전교 학생부회장에 당선된 한사무엘입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를 믿고 소중한 한 표를 던져주신 학우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환일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학생부회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당선된 직후에 한 친구에게 장난기 어린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아깝게 전교 부회장이 되었는데 그러면 공약은 전교 회장의 것만 지켜지는 건가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교 회장의 공약과 제가 내세운 공약에는 여러 면에서 차이점이 있지만, 환일고등학교 학생들의 편의와 즐거운 학창생활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학생회장의 공약뿐만 아니라 제가 다짐했던 공약 또한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출마할 때 '섬김' 의 자세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는 학생들을 내려다보며 이끌기 보다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학생들과 학교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자세를 잃지 않고 학생들의 뒷바라지를 톡톡히 하는 학생회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학생회장, 부회장, 학생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할 때 내세운 공약은 매우 일시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을 저희에게 언제든지 말씀해주신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저희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명문 환일고등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학생부회장 한사무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장님 취임예배 및 정부회장 임명식

2015년 9월 7(월) 본교 대강당에서 김은미 교장님 취임예배가 거행되었다. 김은미 교장님은 2012년 학교법인 운화학원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셨고, 2015년 현재는 본교 중 · 고 교장님으로 새로운 직분을 맡으셨다. 박종관 목사님의 "충성된 일꾼"이라는 주제의 설교 말씀 다음에 최상호 교장님의 이임사가 이어졌고, 이어 김은미 교장님께서 "그리스도 삶을 실천하고 생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취임사로 답하셨다. 그리고 2학기 정부회장 및 학생회 임명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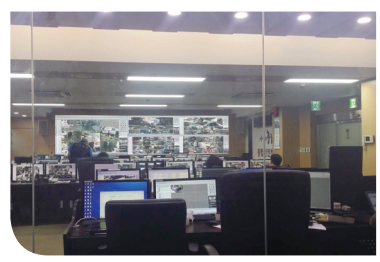
학생농부 텃밭 가꾸기

2015년 8월 26일(수)에 1학년 학생회와 생활부 교사들이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운화학원 법인농장으로 '학생농부텃밭가꾸기' 체험활동을 갔다. 학생들은 밭의 잡초를 뽑아내고, 감자도 캐고, 잘 익은 옥수수를 따면서 수확의 기쁨을 만끽했다. 손쉽게 사 먹었던 농작물이 자라는데 이렇게 농부의 손길 수천 번 닿는 사실에 새삼 감사함을 느끼기도 했다. 오고 가는 대화 속에 개학 후 분주했던 마음을 홀가분하게 털고, 풀냄새 가득한 자연 속에서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는 하루였다.

2015 진로지도의 날
– 대입설명회 및 수업 공개 –

2015년 8월 27일(목)에 진로지도의 날을 맞아 고 1, 2,3학년 전체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대입설명회 및 수업 공개가 진행되었다. 교장님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연구부장님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을 위한 학부모 연수' 시간을 갖고, 엄경숙 정보학원 입학전략실장님께서 대입설명회를 진행해 주셨다. 대입설명회가 끝나고 '교실 공개 수업' 행사를 진행하여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이 교실에서 수업 받는 모습을 참관하셨다. 이번 행사가 변화되는 대학입시제도 및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구청 공무원 체험교실



2015년 9월 9일(수) 진로동아리와 사회문화탐방반 학생 30명이 김효숙 선생님과 박창희 선생님 인솔 하에 서울 중구청의 '공무원 체험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공무원 직업에 대한 소개부터 중구청장과의 대화 시간도 갖고, 각 부서를 견학하여 업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해보기도 했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다양한 업무 분야를 간접 체험하고 학생들이 꿈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선교칼럼〉

겸손에 이르는 7단계

박종관 목사

(눅 18:9-14)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은혜를 받지 못한 자보다 은혜를 좀 받았다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더 많은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마치 타다 남은 나무 조각이 연기를 피우므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나게 하는 현상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 시키셨으며 하나님은 돈 좀 벌었다고 교만해진 어리석은 부자의 영혼을 바로 그날 밤에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바리세인의 기도를 "교만은 모든 죄악의 왕이니 교만이 마음속에 있으면 만악이 따라오고 모든 덕은 물러간다" 라고 교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겸손한 사람은 존귀하게 되고(잠18:12), 영예를 얻게 되며(잠29:23),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시147:6), 하나님이 높여 주시며,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며(시10:17), 재물과 영광을 얻게 되고(잠22:4),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되며(마11:29), 시험들일이 없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교훈을 통하여 겸손의 삶을 사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눅 18:13)

사람이 겸손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불의한 재판관이나 바리세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음욕이 강하여도 늙으면 식어지고 분노가 일어나도 자극을 주지 않으면 식어지나 교만은 언제나 그림자 같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리처럼 하나님을 두려워 할 때 겸손해 질 수 있습니다.

2. 자신을 바로 알아야합니다(눅 18:13)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참모습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바로 안다고 하면 바리세인처럼 절대 교만할 수 없고 세리같이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3. 자의(自義)를 버려야 합니다(눅 18:14)

본문에는 세가지의 의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불의 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멸시하며 온갖 불의를 저지른 불의한 재판관이요. 둘째는 자의 입니다. 바리세인은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셋째는 칭의 입니다. 세리는 자기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자세를 버려야하며 자의를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4. 비교 관념을 버려야 합니다(눅18:11)

바리세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었기에 자만에 빠졌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 할 때 교만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투기하게 됩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는 각각 재능에 따라 다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 사용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환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비판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마7:1)

성베르나르도는 말하기를 "남을 비판하는 혀는 독사보다 더 독하니 능히 세 사람을 해한다. 첫째 비판하는 자를 해하고, 둘째 듣는 자를 해하고, 셋째 비판받는 자를 해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남에게서 비판을 받으면 겸손히 자기의 단점을 시정하기를 좋아하지만 남의 단점을 비판 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는 소리도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환일인 여러분! 비판하지도 말고, 듣지도 맙시다.!!

6. 칭찬 받기를 거절하십시오(잠27:21)

과한 칭찬은 사람을 시련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한 칭찬은 칭찬받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겸손하려면 사람의 칭찬하는 소리에 마음이 동하지 않고 초연의 자세를 가져야합니다.

7. 높아지기를 탐하지 마십시오(눅18:14)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자기를 비어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환일인들도 높아지려는 탐욕을 버리고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경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복 받는 비결이 될 것이다.

성 안토니오가 영안으로 세상을 보니 마귀가 온 땅에 그물을 편 것을 보고 두려워 탄식하기를 "누가 능히 이 그물을 벗어나겠느냐 하니 한 천사가 대답하기를 겸손한 자만이 능히 이 마귀의 그물에서 벗어 날 수 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겸손이다" 라고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환일인 여러분! 개교 68주년을 맞이하는 환일인들 답게 겸손한 삶을 삽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십니다. 모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겸손을 배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독서칼럼〉

책 한 권으로 인생이 바뀐 이야기

권오철(천체사진가)

제 직업은 천체사진가입니다. 밤하늘의 별과 천문 현상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는 것으로 밥벌이를 합니다. 불과 10년 전 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없던 직업이죠. 세계적으로도 몇 명 없는 직업이기도 해요.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잘하게 되고 그러다 직업이 된 흔치 않은 경우지요.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니 행복합니다. 별과의 인연은 책 한 권으로 시작되었어요. 고등학교 때 읽은 〈재미있는 별자리여행〉이라는 책이 제 운명을 바꾸었죠. 어느 날 친구 녀석이 밤하늘의 북두칠성을 알려주며 아는 척을 하는 거에요. 바로 그 책을 읽은 거였지요. 저도 그 다음 날부터 그 책으로 밤하늘 여행을 떠났지요. 책에 나오는 수많은 별자리들이 밤하늘에 그대로 있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새벽까지 별을 보다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남쪽물고기자리의 일등성 포말하우트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하기도 했지요. 어느 날에는 엄청나게 큰 별똥별이 떨어지다 터지는 것을 보고 간담이 서늘해지기도 했어요. 망원경과 쌍안경으로 우주 더 깊숙한 곳으로 떠나기도 했지요. 관심이 많아지면서 점점 더 많은 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성운, 성단, 은하에 관한 책도 보고 행성에 관한 책들도 보게 되었지요. 망원경 만드는 법과 점성학 책까지 닥치는 대로 구해다 읽었지요. 사진도 책으로 배웠습니다. 대학교에서 사진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사진에 관한 수많은 책들을 읽은 덕에 지금 천체사진가가 될 수 있었지요. 한 권의 책으로 시작된 여행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그때는 몰랐네요. 그 책을 읽지 않았다면 별에 빠지지도 않았을 거고, 별 사진을 찍게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뭔가를 경험해 본다는 것, 그거 살면서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스케이트화를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 쪽으로는 재미가 있는지 재능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만약이지만, 피겨 여왕이라 불리는 김연아가 스케이트화를 신어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범하게 공부만 하다가 취업 준비생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르게 태어납니다. 무엇을 잘 하는지, 어떨 때 행복한지 다 달라요. 그런 내 자신을 스스로 알게 되는 데에는 수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직접 경험이던 간접 경험이던 내가 경험한 것까지가 바로 나의 한계입니다. 요즘은 TV나 영화, 인터넷에서도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게임을 하다가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책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단편적인 정보가 아니라 깊고 넓게 경험하게 해주니까요. 인터넷에 게시물 하나 쓰는 것에 비해 한 권의 책을 만드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잘 만들지 않으면 팔리지 않기 때문이지요. 책이 보다 믿음직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많이 담게 되는 이유입니다. 저도 책을 여러 권 냈지만 한 권의 책이 나오기 까지 제 원고를 수십 번씩 다시 읽고 검토합니다. 참, 제 운명을 바꾼 〈재미있는 별자리여행〉 책이 첫 출간된 지 23년 뒤인 2013년에 개정판이 나왔어요. 새 책의 사진은 제가 촬영했답니다. 참 재미있는 인연이지요. 여러분도 책을 통해서 또 다른 세상을 많이 경험해 보세요. 그래서 진정한 내 자신을 찾아 직업으로 삼으면 행복한 어른이 될 수 있답니다."

권오철 천체사진가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과 벤처기업에서 잠수함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유무선 인터넷 관리 등 다양한 일을 했다. 일은 재미있으되 대한민국에서 회사원으로 사는 삶은 행복하지 않아 사진가로 전업했다. 수입은 절반 이상으로 줄었으나 백배 이상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다.

미국 NASA의 Astronomy Picture of the Day에 한국인 최초로 선정되었고, 미국 Nationaln Geo-graphic사이트에 사진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 유명 천제사진가 33인으로 구성된 TWAN의 일원으로 UNESCO 지정 '세계 천문의 해 2009'의 특별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교육기부특강〉

국제범죄와 과학수사

한림대 장윤식 교수님

2015년 6월 24일(수) 본교 소강당에서 미래의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질 경찰을 꿈꾸는 학생들과 진로를 탐색하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 「국제범죄와 과학수사」 특강을 들었다. 한림대 장윤식 교수님께서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 국제 범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어 주셨고, 앞으로 무인드론 등을 활용해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 등을 설명해 주셨다. 책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례들과 새로운 방안들에 학생들이 눈을 반짝이며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

〈금융특강〉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금융교육

권은이 전 우리은행 지점장

2015년 8월 26일(수)에 본교 소강당에서 전 우리은행 지점장이신 권은이 강사님을 모시고 청소년이 꼭 알아야할 금융교육에 대한 특강이 진행되었다. 사금융 피해, 보이스피싱 피해 등 구체적 사례를 통해 학생들에게 금융피해의 심각성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돈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돈의 눈덩이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생활 속에서 우리의 '주머니 경제' 를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용돈기입장 쓰기를 적극 추천해 주셨는데, 우리 환일의 학생들이 이러한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을 시작으로 돈을 잘 다스리는 현명한 경제인이 되길 기대해 본다.

〈기획기사〉

9월 모의평가 이후 학습 방법

-쉬운 수능 예상, 선택과목 변수될 듯-

연구부장 이정철

9월 모의평가는 국어, 수학, 영어의 난도가 낮은 가운데 변별력은 지난해 수능과 마찬가지로 탐구에서 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과탐, 사탐 모두 선택과목에 따라 응시자 수와 수준이 유동적인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언어, 수학, 영어영역보다는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시간여유가 상대적으로 많은 재수생이 재학생보다 탐구영역의 학습에 유리한 상황이고, 탐구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지난해 수능에 이어 올 2016 수능에서도 빚어질 전망이므로, 치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

1. 수학 개념원리 기초 다지고 국어 · 영어 꼼꼼한 독해 훈련 필수 이번 모의평가를 볼 때 올해 수능은 전체적인 난이도가 쉽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작년보다 수학B형은 어렵게, 국어B형은 쉽게 출제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국어와 영어 영역은 문제가 변형돼 출제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EBS 교재의 문제 자체를 학습하기보다는 지문과 제재를 꼼꼼히 분석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문제가 어떻게 변형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쌓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영어 영역은 작년부터 빈칸 추론 문항이 4문제가 출제되고 독해 문항이 늘어난 만큼, 정확하고 신속한 독해를 위한 훈련이 필수적이다.

모의평가의 영어가 작년 수능과 비슷하게 쉽게 출제돼 변별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중하위권 학생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수학은 원리와 개념에 충실한 학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EBS 교재 연계 문항은 물론, 고배점 · 고난도 문항까지 해결할 수 있다. 상위권 학생들은 EBS와 연계되지 않는 나머지 30%에 대비한 학습도 소홀하지 않아야 쉬운 수능에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 국어, 영어, 수학이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탐구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자신의 위치 파악해 11월까지 효율적 학습전략 세우자.
수험생들은 채점 결과가 나오면 전국 수험생 중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출제 경향과 난이도 변화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9월 모의평가 결과가 실제 수능으로 이어지는 것은 최상위권에서도 고3 기준으로 20~30% 가량에 불과할 정도로 성적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11월 수능까지 남은 기간에 철저히 대비한다면 충분히 성적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3. 국 · 수 · 영 쉽게 출제… 사탐 · 과탐 주목

9월 모평의 수준으로 봤을 때 2016 수능은 쉽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개선안에 따라 출제된 6월과 9월 모평이 예상대로 평이하게 출제됨에 따라 올 11월 치러지는 수능시험의 난이도도 정부의 의도대로 쉽고 평이하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수능시험이 6월과 9월 모평의 출제경향 및 난이도와 비슷하게 출제된다는 점에서 2016 수능은 국수영의 쉬운 출제 속에 변별력은 탐구영역에서 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국어B형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되면서 국어B형을 많이 선택하는 인문계의 경우는 변별력이 있었는데, 올해는 국어B형도 쉽게 출제되면서 국어, 수학, 영어 모든 과목이 쉽게 출제됐다.

따라서 국어, 수학, 영어 세 과목의 변별력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상대적으로 탐구영역의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탐보다 과탐에 더 큰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연계 수험생이 응시하는 과탐은 연세대 고려대 등 상위권 대학에서 정시 반영비율이 30%로 매우 중요한 과목이며, 과탐 선택과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과탐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국어, 수학, 영어가 쉬워지면서 탐구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수능에서도 자연계열은 수학이 쉽게 출제되고, 과탐이 전년인 2014학년과 마찬가지로 어렵게 출제되면서 탐구 영역의 영향력이 컸다.

특히 탐구는 수험생들이 선택하는 인원수에 따라 등급컷이나 표준 점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과목이라 다른 영역에 비해 변수 요인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 상위권 대학들이 백분위를 활용, 변환표준점수로 전환하기 때문에 과목별 난이도는 정시 전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번 9월 모평에서도 탐구의 영향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탐구가 어려울 경우,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재수생이 유리한 환경을 맞이하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9월 모평 이후에 탐구 영역에 대한 학습 계획을 치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쉬운 수능의 여파로 2015학년도 입시에서도 선택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작용한 경우가 꽤 있어 역시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상위권의 경우 탐구영역에서 과목의 선택이 유불리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쉬운 과목을 선택할 시에는 한 문제에 백분위 차이가 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4. EBS교재 변형.. 기본개념에서 출발한 학습

9월 모평은 영어를 포함, EBS 연계 70% 가량의 정책을 지켰다. 수능 대비 역시 EBS 연계정책을 감안, EBS 교재를 토대로 한 학습이 필요하다. EBS 연계율이 높으므로 EBS 교재를 토대로 기본개념과 유형을 충실히 하면서 변형 문제 등으로 문제풀이 훈련을 해야 한다.

또한 기본개념의 충실한 학습을 주문했다. 국어와 영어 영역의 경우, 문제는 변형 출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EBS 교재의 문제 자체를 학습하기보다는 지문과 제재를 꼼꼼히 분석하는 학습을 해 나가야 한다. 문제가 어떻게 변형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기본이다.

연계 방식은 영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개념이나 원리, 지문이나 자료, 핵심제재나 논지 등을 활용하는 방법과 문항을 변형 또는 재구성하는 방법 등을 사용했다. 영어의 경우 지난 6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대의파악'과 '세부정보(세부사항)'에서 EBS 교재에 나오는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주제와 소재, 요지가 유사한 다른 지문을 활용했다. 대신 단어나 문장이 쉬운 지문을 골랐다.

이것이 EBS 연계문항은 물론 고배점 고난도 문항까지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상위권 학생들은 EBS와 연계되지 않는 나머지 30%에 대비한 학습도 소홀하지 않아야 쉬운 수능에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기본 개념과 원리학습에 충실해야 한다.

환일고 고3 학생 여러분, 수시 원서 점수를 마치고 면접, 논술 준비에 바쁘겠지만 수능고사 준비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치밀하게 대처해서 수능대박을 기원합니다.

〈길우회-독보도서관 고전인문 아카데미〉

공감을 통한 win-win 친구찾기

2학년 최현준

2015년 8월 26일(수) 환일고등학교에 특별한 분이 찾아오셨다. 방현희 소설가님께서 환일고등학교 도서관에서 '소설과 영화로 관계 읽기'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 주셨다. 방현희 작가님은 『달항아리 속 금동물고기』, 『달을 쫓는 스파이』 등의 소설책을 내셨고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 많은 분이어서 어린이 책도 쓰신 바 있다. 이번 강연은 특별하게 소설과 영화를 함께 감상하는 방식이었고 8월 26일부터 9월 9일, 9월 23일까지 총 세 번에 걸쳐 강연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강연에는 소설 『자기 앞의 생』과 영화 『피아노의 숲』을 소개해 주셨다. 소설가 에밀 아자르의 장편소설인 『자기 앞의 생』은 프랑스 백인 사회에서 아랍인, 유대인, 매춘부 등 소외계층과 함께 살아가는 아랍 소년 '모모'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존엄성을 찾아가고 '자기 앞의 생'을 채워가는 이야기이다.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피아노의 숲』은 피아노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카이'와 어릴 때부터 피아노 영재교육을 받으면서 노력해 온 '슈헤이'가 겪는 순수한 갈등, 우정을 그려낸 영화이다.

방현희 작가님은 이 소설과 영화를 소개하시면서 '관계'와 '존엄성' 에 주목하셨다. 작가님께서는 우리 같은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관계가 친구관계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존엄성'을 강조하셨다. 사람은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받거나 하는 상황에서 기분이 나빠지면 존엄성을 침해당하는 것이고 특히 청소년기의 존엄성은 우리사회에서 청소년들을 불안해하는 외부 요소 때문에 훼손당한다고 하셨다.

또, '존엄한 인간'은 자아, 정신, 영혼 세 가지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작가님 말씀에 따르면 자아는 확립되려면 일관된 경험이 필요하다. 여기서 일관된 경험이란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양육을 받는 경험을 말한다. 정신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적인 습득을 통해 만들어진다. 또, 영혼은 감수성을 의미하고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작가님께서는 관계 속에서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을 수용했을 때 정체성이 확립된다고 하셨다. 마지막으로 '페르소나' 라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셨다. 페르소나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불안함을 느낄 때 역할을 수행하는 가면이라고 설명하셨다. 이 페르소나와 맨얼굴의 격차가 가장 적을 때 편안함을 느끼며 그렇기 때문에 친구 관계가 가장 편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강연 때에는 소설 『너와 나의 삼선슬리퍼』 와 영화 『허공에의 질주』를 소개해주셨다. 『너와 나의 삼선슬리퍼』는 방현희 작가님이 직접 쓰신 책으로 평범한 청소년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겪는 갈등을 딛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찾아가는 내용이다. 1988년 영화 『허공에의 질주』는 군사 실험실을 폭파시킨 부모님 때문에 항상 FBI에게 쫓기는 가족의 장남 '대니'가 6개월마다 이사를 해야 하는 생활 속에서 꿈을 좇아가고 사랑을 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내용이다.

강연 내용은 첫 번째 강연과 이어져 친구의 중요성과 공감을 강조하셨다. 작가님은 존엄성 훼손의 구체적 형태를 모멸감이라고 하셨고, 모멸감은 수치심과 모욕을 포함한다고 말씀하셨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때 스스로 자기 훼손을 하는 것을 수치심이라 하셨고 상대방이 나를 격하시켰을 때 느끼는 감정이 모욕감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친구라는 존재는 나를 좋게 봐주기 때문에, 즉, 나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친구관계는 Zero sum이 아닌 Win-win관계라고 설명하셨다. 작가님께서는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다. 트라우마는 정신적 외상을 의미하며 자기 훼손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다. 그러나 트라우마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하다고 하셨다. 나와 공감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극복할 수 있으며 극복 과정에서 사건해결능력과 탄력회복성이 높아진다고 하셨다.

청소년기에 학업만큼 중요한 것이 자아를 찾는 것이다. 방현희 작가님은 이번 강연을 통해 꿈을 향해 달리느라 지친 환일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자신의 존엄성을 보존하고 서로의 옆에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주신 것 같다. 학업에 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현희 작가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존엄성,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친구 사이에 서로 공감해 줄 수 있는 환일고등학교 학생들이 되었으면 한다.

〈KIMC(영어발표) 동아리〉

제1회 모의유엔대회

3학년 강희범

UN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관해 각국의 대사들이 모여 그 문제에 대한 해당 국가의 의견을 밝히고, 각 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도출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MUN은 Model United Nations의 약자인데, 말 그대로 이런UN의 회의방법을 단순화시킨 것이다. 요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나이에 상관없이 많은 학교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추세이다.

"Good evening delegates. We' ll now start the first Hwanil MUN!"

지난 O월 O일, 제 1회 환일 MUN(모의유엔)대회가 개최되었다. 모의유엔을 접해보지 못한 본교 학생들이 많아, 학교 측에 건의하여 대회를 개최 할 수 있었다. 모의유엔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한국의 영어교육과정에서는 많이 부족한 회화와 글쓰기 실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모의유엔 대회는 모든 회의를 영어로 진행하기 때문에, 의제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효율적으로 필력하기위해서는 말의 논리 전개를 잘 파악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 주어진 일정 시간 내에 핵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점을 유의하면서 대회에 참가하면, 자신도 모르게 향상된 회화능력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사회적 이슈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모의유엔대회는 우리가 실제로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가령, 메르스 바이러스의 해결방법, 아마존 산림파괴 해결방법 등이 있다. 이런 의제를 바탕으로, 대회를 위한 자료를 준비는 과정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회의를 진행하며 다른 이들의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관점으로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는 통찰력 또한 기를 수 있다.

이번에 처음 개최된 교내모의유엔에서는 'Finding ways to eradicate the child exploitation(아동노동 착취해결을 위한 방법)' 이라는 주제로 대회를 진행했다. 물론, MUN대회를 처음 접하는 학생이 많아 규칙에 대한 이해와 말하기 방법이 미숙했지만, 준비한 자료를 이용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각 학생들의 주장의견에 대해 반박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은 실제 유엔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약 5시간의 오랜 토론을 통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의안을 작성할 수도 있었다.

첫 번째 교내 대회를 개최라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참가학생들 모두 최선을 다해줬기 때문에 뿌듯했다. 기회가 된다면, 이번 대회의 문제점을 보완 · 개선하여 내년에 제2회 교내 모의유엔대회를 열 수 있으면 좋겠다.

셸리던 교수의 심사평

Judging the Model United Nations Mock Debate

It was gratifying to be invited to judge the Model United Nations (MUN) Mock Debate. This is because students took it upon themselves to organize MUN, sacrificing their precious studying time in the process. Nor would there be MUN without the support of Ms. Kim Eun Mee, M.D., the new principal.

What impressed me the most about the MUN Mock Debate was how well it was organized and how serious the student delegates, representing 30 countries, performed. That the debate was conducted entirely in English is testament to the confidence and public speaking skills of the students. Two student moderators did an excellent job of enforcing the allotted time each delegate was permitted to speak. This was very necessary given the number of delegates participating, and no mean feat. The moderators kept the delegates focused on the debate, and it progressed seamlessly and without confusion. Although the debate took four hours to complete, the delegates did not lack energy or enthusiasm. They were a beehive of activity.

After each delegate gave an opening statement about the debate topic--How to Eradicate Child Labor--there was a 30 minute break during which time they prepared their rebuttals. The Mock Debate then resumed with the delegates presenting lucid rebuttals as well as responding to challenging questions and incisive criticism. That required thinking on their feet, which is difficult enough without having to do it in English. Some delegates were better than others, while a few were superlative and contributed the most, even dominating at times, during the three-hour rebuttal period. This made the three judges' jobs doubly difficult, because we had the unenviable task of choosing who, among the superlative delegates, both Senior and Junior, would be awarded Gold, Silver or Bronze.

Now that I have judged, and observed, the first MUN Mock Debate, I can fully appreciate why Ms. Yoon Jong Eun is so proud of Model United Nations and all th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debate. Kudos MUN delegates and moderators.

〈한여름밤축구대회 소감문〉

별빛이 내리는 한여름밤에 열린 축구대회

2학년 한사무엘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한여름밤의 축구대회' 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었던 행사였다. 먼저 별빛이 비추는 한밤에 운동장에서 학우들과 함께 뛰놀며 쌓아두기만 했던 여러 스트레스를 마음껏 풀 수 있었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 여름밤의 바람이 스치는 밤에 학우들과 함께 축구대회에 참가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을 교실 안에서만 지내야 했던 우리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이었다. 밤에 하는 축구이기에 큰 행사에서나 볼 수 있었던 대형 조명을 사용하였는데, 조명의 환한 불빛 아래에서 환일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삶의 일부인 축구를 하는 것은 무척이나 설레는 일이었다. 물론 시험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열리는 축구 대회인지라 부상의 위험이 적지 않았지만, 학생들 서로 간의 배려와 스포츠맨십으로 큰 부상 없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경기가 모두 끝나고 시상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훈훈한 격려와 칭찬을 보내는 모습 또한 인상 깊었다.

한편, 이번 행사는 학생회의 전격적인 진행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전 행사들은 학생회의 역할이 미미하고, 대부분이 선생님들의 주도 하에 진행되었는데, 한여름밤의 축구대회는 사회자부터 주심, 부심까지 모두 학생회의 구성원들이 맡으면서 주체적인 행사 진행을 하였다. 앞으로 학생회가 이처럼 행사 진행 및 준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학생회가 더욱 성숙하고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행사 진행 및 준비에 다소 차질이 있어, 행사가 기대했던 만큼 완벽하게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그 나름대로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내년에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학생회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를 하여서 모든 학생들이 마음껏 즐기며, 스트레스를 한껏 털어버리는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단신] 학교환경개선 프로젝트

1.운동장 음수대 설치

갈증해소엔 음수대♪

2. 에코스쿨(벽면녹화 사업)-중구청 지원

삭막했던 담장이 푸르게푸르게♧♣

3. 빗물이용시설 설치공사-서울시 지원

버려지는 빗물 모아모아 화단에 물주고♧♠

〈간부수련회 소감문〉

비발디 파크에서의 우정 빌드

1학년 고상민

1학기 2학기 회장, 부회장을 비롯한 간부학생들이 강원도에 있는 비발디 파크로 1박 2일 수련회를 갔다. 최근 학업에 전념하느라 건강에 소홀했던 선배들, 서로 서먹했던 친구들과 함께 수련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유쾌하고 즐거운 활동을 통해 잠시나마 도시를 떠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기회가 나를 포함한 간부학생들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한다.

수련회의 다양한 활동 중에 개인적으로 제일을 뽑는다면 수상체험이 가장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활동이었다. 재미있는 놀이기구들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이것을 즐기기에 활동 시간이 넉넉하게 주어져 시간의 부족함이 없이,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다. 또한 관리자분들이 안전을 관리해 주셔서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활동이 되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다. 식사 부분에서 평소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강원도의 지역 특색이 배어 있는 음식메뉴가 더 추가되었으면 하는 아쉬움과 제육볶음을 포함한 고기류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활동을 마치고 쉴 수 있는 숙소에 대해 평을 하자면,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서 편리했고 무엇보다 노래방, 탁구장, 당구장 등의 놀이시설과 즐길 거리가 많아서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었다. 친구들과도 또 한 번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마다 간식, 야식 등을 제공해주셔서 더욱 풍성하게 휴식시간을 만끽할 수 있었다. 이렇게 즐겁고 안락한 하루를 보내고 둘째 날이 되었을 때 '짚라인 체험'이라는 또 다른 체험이 있었다. 이 활동은 높은 곳에서 줄을 타고 내려오는 체험이다. 아무래도 높은 곳에서 하는 활동이니 무서움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안전요원들의 철저한 안전 확인과 간단한 체험방법 덕에 재밌게 즐길 수 있었다. 하늘을 가르면서 넓은 강과 산의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오니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도 같이 날아갔다.

이렇게 1박 2일 동안 다양하고 유쾌한 체험, 그리고 안락한 숙소에서의 휴식을 통해 서먹한 친구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또한 내안의 불필요한 생각을 버릴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이었으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수련회였다.

[단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어긋난 만남

〈교육부 선정 국토탐방프로그램 : '환일고 덕유산 종주' 소감문〉

산악동아리를 만들고 싶어요!

1학년 김진석

'산' 보다는 '바다' 를 좋아하는 나는 어느 날 갑작스러운 등산을 시작하게 되었다. 고된 수업을 마치고 하루를 마무리 하는 종례시간이었다. 집으로 향하려는 순간 담임선생님께서 제안을 하나 하셨다. 제안보다는 권유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등산과는 거리가 먼 나에게 등산을 가자고 하시는 선생님의 권유가 벌써부터 지쳤었지만 어쩔 수 없이 형들에게 이끌려 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재미있게 놀다 오려고 했지만 형들과 해본 등산이라고는 남산을 가본 것이 전부인 나는 걱정이 되었다. '잘 할 수 있을까, 형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안고 출발했다.

첫날에는 곤돌라를 타고 산에 올라가 대피소에서 도착하였다. 도착한 순간 가슴이 탁 틔었다. 도시에서는 안 좋은 공기와 각종 소음, 그리고 밝은 빛이 아닌 맑은 공기와 풀잎내음, 새들과 벌레들이 우는 청량한 소리는 몸과 마음을 맑게 정화시켜 줬다. 친구와 단상에 앉아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니 이곳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밥도 정말 맛있었다. 인스턴트 음식이라도 선생님들과 형들 모두 만들어 먹으니 웬만한 식당보다 맛있었다.

둘째 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등산 준비를 하는 동안 정말 떨리지 않을 수 없었다, 첫 등산의 설렘을 앉고 출발하였다. 다행히 날씨는 등산하기 딱 좋은 날씨였다. 선생님들과 형들 모두 함께 줄을 맞추어 등산을 했다. 초반에는 평탄한 길이어서 음악을 듣고 여유롭게 갈 줄 알았지만 갈수록 숨이 벅차왔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경치를 볼 틈도 없이 고개는 점점 밑으로 향했다. 10Km를 가고 겨우 점심을 먹을 대피소에 도착했다. 밥은 정말 꿀맛이 아닐 수 없었다. 배가 불러지니 스쳐 지나갔던 멋진 경치가 시야 안으로 들어왔다. 정말 멋있었다. 몇 배나 멋있는 경치를 구경하기도 잠시, 다시 물을 받고 남은 등산을 시작했다. 발에 모래주머니라도 달아 놓은 듯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정말 힘들었다.

오후 산행은 오전 산행보다 훨씬 더 길이 험난하고 가팔랐다. 정말 후회스러웠다. '이 힘든 걸 왜 하러왔지' 라는 생각을 하였다. 평소대로라면 집에 누워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을 텐데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누군가 감탄을 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 폭의 그림이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남부러울 것이 없었다. 후회한 것이 모두 사라졌다. 내려오면서 형들과도 많이 친해지고 트럭을 타는 재미있는 경험도 했다. 여관에서는 정말 피곤하여 바로 곯아떨어졌다.

이번 등산을 통하여 정말 소중한 경험을 했다. 친구와의 사이는 더욱 돈독해지고 형들과는 정말 많이 친해졌다. 또 등산의 매력에 빠졌다. 산은 힘들지만 그 이상의 혜택을 주는 것 같다. 형들과 학교에서 자율 동아리로 산악 동아리를 만들자고 하였다. 이번 국토순례를 통하여 몸과 마음이 정화되고 잊지 못 할 추억도 많이 생긴 것 같다. 다음에는 꼭 친한 친구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국토순례를 통해 정말 많은 추억이 생긴 것 같다. 선생님들께서 훗날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 이라고 하셨지만 등산할 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런 생각은 나지 않았다. 하지만 보고서를 쓰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첫 등산의 정말 많은 것을 얻었다. 다리가 아팠지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 것 같고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생각도 많이 했고, 친구들과 형들과도 많이 친해졌다. 태어나서 몇 보기 힘든 멋진 경치도 본 것 같다. 그리고 만약 힘든 등산을 혼자 했으면 정상까지 올라가는 쾌감을 느끼지 못 했을 것이다. 하지만 같이 갔던 친구들과 형들이 앞에서 이끌어 주었고 뒤에선 격려해주신 선생님들이 계셔서 할 수 있었다. 서로 의지하며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두 등산에 성공한 것 같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산을 오르고 내리면서 봤던 경치들이다. 특히 오전에 안개 자욱한 경치는 정말 일품이었다. 마지막 산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경치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형들과 모두 감탄사가 끊이지 않을 정도였다. 또 마지막 산 정상에 올랐다는 성취감에 속이 후련한 느낌이 들었다. 아픈 곳이 생각나지 않았다. 첫 등산의 좋은 추억만 가져가는 것 같다.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지리산 국토순례를 가자고 하셨다. 그건 생각을 좀 해봐야겠지만 국토순례를 마친 후 그 짜릿함과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해냈다' 는 성취감은 또 맛보고 싶어 욕심이 난다.

〈학생농부텃밭가꾸기 소감문〉

옥수수 밭에서 찾은 기쁨

1학년 임형욱

오늘은 학생회에서 옥수수를 재배하러 가는 날이었다. 날씨는 시원하고 화창해서 학교에만 있기 아까운 날씨였다. 우리는 아침 8시에 모여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옥수수 감자 밭에 도착했다. 옥수수 밭은 처음에 봤을 때는 그렇게 넓어 보이지 않았는데, 잡초를 어느 정도 제거하고 나니 생각보다 넓었다. 옥수수를 따기 전에 짧게 옥수수를 따는 법을 배웠고, 바로 포대 하나씩 받고 옥수수를 따기 시작했다. TV에서는 옥수수가 똑똑 부러져서 쉽게 따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직접 따보니까 보기와는 다르게 옥수수가 질겨서 따는 게 쉽지 않았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따다 보니 요령도 생기고 재미도 있었다. 곳곳에 숨어있는 옥수수를 따는 것도 꽤 재미있었다. 그렇게 옥수수를 따다 보니까 포대가 많이 묵직해졌다. 포대가 무거워질수록 힘은 들었지만, 그만큼 더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우리가 딴 옥수수가 정확히 어디에 쓰일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누군가 먹을 것이란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다. 옥수수를 따는 중간에 우리는 방아깨비도 잡고 사마귀 2마리도 잡아서 잠깐 가지고 놀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가까이 본 것은 처음이라서 신기했다. 옥수수 따는 일은 모두 열심히 해서 빨리 끝났다. 그곳에서 좀 더 놀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살짝 아쉬웠다. 우리는 기념사진을 찍고, 옥수수를 트럭에 싣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점심을 먹었다. 옥수수를 따고 와서 밥을 먹으니 평소보다 더 맛있었다.

개학을 하고 나서 학교에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항상 피곤했었는데, 오랜만에 소풍처럼 이렇게 서울을 벗어나 시골에 다녀오니 기분도 좋고 몸도 개운해진 것 같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옥수수 감자 밭에 자주 가서 농사일을 돕고 싶다. 매년 명절마다 시골에 놀러가지만, 이번처럼 농사일을 직접 해본적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이나마 농사일을 돕게 되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다. 그리고 이 경험을 계기로 시골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시골에 살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교통도 안 좋고, 재미있는 것도 많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공기도 좋고 여유롭고 재미있고 느긋한 것 같아서 시골은 살기 좋은 곳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시골로 내려가서 여유롭게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싶다.

〈대학전공 심화탐구프로그램 소감문〉

내 꿈을 위한 한 걸음

2학년 손상원

- 강　사 : 임종범 교수(동국대 IT융합교육센터)
- 일　시 : 2015년 7월 9일 ~ 7월 15일(15시간)
- 주　제 : 안드로이드 롤리팝 애플리케이션 기획 및 개발

이번에 동국대학교에서 5개 고등학교 학생 가운데 신청자에 한해서 진학하고 싶은 학과 수업을 미리 들을 수 있는 대학 전공 심화 탐구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나는 진로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고 나중에 실제 학과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였다. 전공탐구 프로그램은 영문과, 인문과, 사회과학과, 자연과학과, 컴퓨터 경영과 등 8개의 전공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중 난 컴퓨터 경영과를 선택했었고 주제는 '안드로이드 롤리팝 애플리케이션 기획 및 개발' 이었다. 수업은 동국대학교 교수님 한분 과 대학생 조교수님 두 분이 진행해 주셨다. 수업 특성상 컴퓨터를 이용해 수업진행을 하는 것이라 앞에서 교수님이 스크린으로 시범을 보여 주시고 학생들이 본인 자리에 있는 컴퓨터로 보고 따라하는 식이라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즉각 조교선생님 두 분이 학생과 일대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개인 질문도 받아주셨다. 이런 형식의 수업진행 덕분에 타 강좌보다 수강생이 많았지만 수업 진행에는 차질이 없었고 궁금했던 것들도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었다. 동국대학교 강의실에서 1주일, 하루 4시간씩 진행되었는데 컴퓨터 경영과는 프로그래밍 준비를 위한 사전 프로그램 설치 및 화경구성과 본격적인 프로그래밍 수업진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타 강좌들은 어땠는지 몰라도 컴퓨터 경영과는 프로그램 설치 부분에서 교수님께서 실제 혼자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처음부터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려고 거의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인터넷 상에서 하나하나 일일이 받느라 다운로드 속도가 느려졌고 그 시간동안 수업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심화과정은 배우지 못하게 된 게 조금 아쉬웠다. 대신 안드로이드의 역사와 운영체제 구조등 기초적인 부분은 완벽하게 알 수 있었다. 아직까진 롤리팝 os의 보급률이 그리 높지 않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프로그래밍 한 애플리케이션을 본인의 스마트폰에 설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같이 광고나 마케팅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대에 걸맞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란 수업주제 선택도 적절했고 많은 인원을 이끌고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조교수님들을 모셔온 것에서 교수님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고 수업 준비를 하셨다는 게 느껴졌다. 자신의 전공과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은 친구들은 이와 같은 진로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해 개개인의 적성을 살려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금융특강 소감문〉

내 생에 첫 경제학

2학년 박수하

평소 경제보다는 정치나 사회 쪽에 관심이 갔던 나로선 솔직히 말해서 경제 수업에 흥미가 있진 않았다. 하지만, 경제 또한 사회의 일부가 될 수 있고, 정치도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고쳐먹고 경제 특강을 신청 하였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로만 듣는 딱딱하고 지루한 경제수업보다 강사님의 말씀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웠고, 귀에도 잘 들어왔다. 돈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돈의 눈덩이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다. 강사님은 돈이 현대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셨다. 또한, 앞으로는 돈의 중요성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부각 될 것이고, 경제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대처하며, 현명한 사람이 앞으로 펼쳐질 사회에서의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나아가, 넓은 관점의 경제가 아닌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주머니 경제' 를 살릴 수 있는 방법 또한 알려주셨는데, 그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귀가 닳도록 듣던 용돈기입장 쓰기였다. 이 '용돈기입장 쓰기' 의 위력을 증명하기 위해 강사님은 자료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세계 2위의 재벌인 '카를로스 슬림 엘루' 도 5살 때부터 지금까지 용돈기입장을 써오고 있다고 한다. 용돈기입장을 쓰는 습관은 우리들에게 무분별하고 충동적인 소비를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재벌가의 사례에서도 증명이 되었음을 보여주셨다.

내가 이 강의를 들고 난 후 경제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본 것 중 하나는 돈은 돌고 돈다는 것이다. 한번 발행되면 불에 타 없어지거나 물에 젖어 펄프가 풀어져 없어지기 전까지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사용되며 돈다. 하지만, 돈을 쓰는 것도 어떤 시기에 쓰는가에 따라 그 효율성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시세가 어떤가에 따라서 돈은 최대의 이익을 창출해 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큰 손실을 만들기도 한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물물교환으로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했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물건을 살 수 있고, 심지어 돈도 빌릴 수 있는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관용표현이 있듯이, 돈은 어떠한 계획을 철저히 세우지 않고 쓰게 되면 지갑의 바닥이 보일 때 쯤 재정 관리를 잘못 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강사님은 용돈 기입장의 중요성을 몇 번이고 강조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용돈기입장을 쓰기를 강력하게 장려하셨다.

이번에 들었던 강의는 어떠한 형식에 얽매이고 딱딱한 수업이라기 보단 한편의 이야기를 듣는 느낌이었다.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해 주셔서 2시간이라는 시간 내내 불편함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경제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졌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간다. 돈을 버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그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힘든 과정을 조금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경제에 대해 이해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경제를 공부하는 이유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에게 이 강의는 경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 더 탄력적으로 탐구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좋은 강연을 해 주신 강사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다.

2015 자랑스러운 환일학생대상 수상자(10명)

고재형(2-10)

▶한성 노벨 영 · 수재 자연계열 장학생
(한성손재한장학회, 2015.2)

황의호(2-6)

▶휴먼테크논문대상 고교 동상(삼성전자, 2015.2)
▶국제청소년학술대회(ICY) 우수 청소년 학자상(2015.8)

윤유성(2-3)

▶제13회 틴매경TEST 최우수상(매경미디어그룹, 2015.3)
▶제16기 영어경제학습과정 우수 수료상
(전국경제인연합회, 2014.12)
▶제3회 전국고교생 금융경제경진대회 대상(안산대학교, 2015.9)

백종빈(2-3)

▶2015 한화회장배 전국 사격대회 50m 권총 단체 금메달,10m 단체 동메달, 25m 속사권총 개인은메달, 단체 금메달,10m 공기권총 단체 동메달, 25m스탠다드 권총 단체 금메달,개인 은메달
▶37회 충무기 중.고 사격대회 10m 권총 단체 은메달 등 다수 입상

황재환(2-5)

▶경배와 찬양단 리더
(목요찬양집회 인도, 선교부장 모임 준비 악기 세팅으로 헌신)
▶ 학급선교부장

신희찬(3-7)

▶제37회 전국과학발명품경진대회 장려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2015.8)
▶발명 특상(1등급, 서울시 교육감상, 2015.5)

주진영(3-8)

▶성균관대학교 · 동아일보 주최 수학경시대회 동상(2014.6)
▶한국수학경시대회 동상(2014.7)

박상건(3-6)

▶2015 건국대 미술 · 디자인 실기대회 디자인 부문 대상
(총장상, 2015.9)

성준석(3-5)

▶2015 한화회장배 전국 사격대회 50m 권총 단체 금메달,
10m 공기권총 단체동메달
▶37회 충무기 중.고 사격대회 10m 공기권총 단체 은메달
▶10회 대통령 경호실장기 전국사격대회 50m 권총 단체 은메달 등 다수입상

필감공(3-7)

▶경배와 찬양단 단장
(학교예배 준비 찬양, 목요찬양집회 인도, 각종 교내행사 참여)
▶학급선교부장
▶수시합격(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을 통해 학교를 빛냄.

2015 건국대 미술 · 디자인 실기대회

디자인 분야 대상 3학년 박상건 군

건국대 예술디자인대학은 '2015 건국대 미술 · 디자인 실기대회' 에서 본교 3학년 박상건 학생 작품이 디자인 분야에서 대상인 총장상을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총장상을 수상한 박상건 학생에게는 상장과 3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건국대 미술 · 디자인 실기대회' 는 7월 한 달간 1만 명이 넘는 전국 고등학생과 입시준비생이 참가한 가운데 미술(인체색채소묘, 정물수채화)과 디자인(기초디자인) 2가지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환일의 명예를 전국에 알리고 빛나게 한 박상건 학생에게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교외수상자

수상일	이름	학년	수상종별	수상기관
2015/05/07	공영진	3	표창장(선행)	서울사립인문고등학교장회
2015/05/07	홍명기	3	표창장(선행)	서울사립인문고등학교장회
2015/05/07	조근희	3	표창장(선행)	서울사립인문고등학교장회
2015/05/07	이창민	3	표창장(선행)	서울사립인문고등학교장회
2015/05/07	조선용	3	표창장(효행)	서울사립인문고등학교장회
2015/05/07	안태현	3	표창장(선행)	서울사립인문고등학교장회
2015/06/15	윤유성	2	장려상	매일경제신문사
2015/05/08	한재욱	3	표창장(사회봉사부문)	대한적십자사
2015/05/08	김정민	3	표창장(사회봉사부문)	대한적십자사
2015/05/08	이승환	3	표창장(사회봉사부문)	대한적십자사
2015/05/08	김민기	3	표창장(사회봉사부문)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2015/05/08	윤상준	3	표창장(사회봉사부문)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2015/05/08	진원준	3	표창장(사회봉사부문)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2015/06/04	권우성	3	표창장	세계도덕재무장 한국본부
2015/06/04	이창민	3	표창장	세계도덕재무장 한국본부
2015/06/04	기송현	3	표창장	세계도덕재무장 한국본부
2015/06/04	손재윤	3	표창장	세계도덕재무장 한국본부
2015/06/04	김성재	2	표창장	세계도덕재무장 한국본부
2015/08/07	황의호	2	우수 청소년 학자상	한국 청소년 사회과학 연구소 / 한국청소년학술대회 조직위원회
2015/08/11	강상욱	3	2015 건국대학교 미술디자인 실기대회 특선	건국대학교
2015/08/11	박상건	3	2015 건국대학교 미술디자인 실기대회 총장상	건국대학교
2015/08/12	신희찬	3	제37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장려상	미래창조과학부
2015/08/31	박성현	3	제13회 한국자원봉사전국대회 대상	한국시민자원봉사회

교내 수상자

학급 관리 우수학급

▲ 금상
1-5(윤종은 선생님)
1-9(김경신 선생님)
2-10(명홍식 선생님)
3-4(김주경 선생님)
3-11(허성원 선생님)

▲ 은상
2-2(이준형 선생님)
▲ 동상
1-2(김효숙 선생님)
1-10(최진성 선생님)
2-11(권주희 선생님)
3-10(김철우 선생님)

그린 마일리지

▲ 금상
김동규(1-5) 진태준(2-9)
김태욱(3-4)
▲ 은상
강동규(1-7) 신에녹(1-10)
이형철(1-5) 임채진(2-9)
홍재민(2-9) 김지훈(2-5)
홍동욱(2-9) 김성훈(3-2)
장규동(3-2) 김재민(3-2)

▲ 동상
박성민(1-1) 오윤석(1-4)
임지훈(1-8) 전우영(1-10)
김준혁(1-11) 노호준(2-1)
송인준(2-4) 박성우(2-5)
이현우(2-5) 전진우(2-5)
조세훈(3-8) 이승민(3-4)
이석현(3-7) 이태현(3-8)
김수민(3-8) 노동휘(3-9)

교내 과학발명품 경진대회

▲ 대상
신희찬(3-7)
▲ 금상
박종현(3-7) 하태준(3-9)
박현준(1-7)
▲ 은상
기송현(3-8) 김동연(2-6)
오부환(2-6) 정준교(2-6)
진우빈(2-8)
▲ 동상
김승건(3-9) 진운준(3-11)
김성엽(2-6) 권혁제(2-9)
김동진(2-9) 김명조(2-9)
진태준(2-9) 정재웅(2-10)

▲ 은상
주상현(2-11) 장민우(1-1)
▲ 장려상
오명찬(3-9) 방재한(3-10)
신동건(2-6) 이옥구(2-7)
박준(2-8) 박지홍(2-8)
이성혁(2-8) 권민재(2-9)
김경빈(2-9) 김대우(2-9)
홍재민(2-9) 홍준화(2-10)
박진희(1-2) 조명현(1-4)
김동휘(1-5) 박진용(1-5)
방석현(1-5) 이형철(1-5)
강태욱(1-6) 손진혁(1-8)
정세현(1-8)

1학기 교내스포츠클럽 축구대회

▲ 1위(공동수상)
박현준(3-1) 이원석(3-1)
김지운(3-2) 박재형(3-2)
연준모(3-2) 이대호(3-2)
이재철(3-2) 전찬우(3-2)
이준희(3-3) 박문호(3-4)
심기현(3-4) 이관석(3-4)
나명훈(3-5) 이승주(3-5)
조승훈(3-5) 김기범(3-6)
우건하(3-8) 라현찬(3-10)
▲2위(공동수상)
강민상(1-1) 곽선우(1-1)
박성찬(1-1) 양호진(1-1)
장민우(1-1) 전지섭(1-1)
고상민(1-1) 강수한(1-2)
명원빈(1-2) 송민우(1-2)

이우용(1-2) 최우혁(1-2)
최종호(1-2) 조민수(1-4)
이준호(1-6) 전영훈(1-6)
이재용(1-9) 유재혁(1-11)
2위(공동수상)
▲ 3위(공동수상)
김현중(3-3) 이혁(3-4)
전재윤(3-4) 주진웅(3-4)
김현승(3-5) 한성식(3-5)
김종호(3-6) 김지상(3-6)
박상건(3-6) 오형석(3-6)
이건희(3-6) 정택선(3-6)
조윤형(3-6) 최홍기(3-6)
유빈(3-7) 김성현(3-9)
신희문(3-11) 이원상(3-12)

1학기 교내스포츠클럽 농구대회

▲ 1위(공동수상)
김경일(2-3) 이진호(2-4)
최영동(2-6) 이옥구(2-7)
최승현(2-7) 김성재(2-7)
정누가(2-8) 정승훈(2-8)
한사무엘(2-8) 강호준(2-9)
▲ 2위(공동수상)
김민건(3-3) 김제학(3-3)
한승엽(3-3) 박문호(3-4)

김태현(3-10) 안동준(3-10)
최인호(3-11)
▲ 3위(공동수상)
유진상(3-8) 고용수(3-9)
김민기(3-9) 김봉성(3-9)
김승건(3-9) 김한주(3-9)
노동휘(3-9) 오명찬(3-9)
이승구(3-9) 최희원(3-9)
김주호(3-11)

환경정화 우수

▲ 금상
1-2(김효숙 선생님)
2-9(김희경 선생님)
3-6(허동명 선생님)
▲ 은상
1-2(오혜경 선생님)
2-7(남민희 선생님)
3-9(최선영 선생님)
▲ 동상
1-6(이은형 선생님)
2-5(이링구 선생님)
3-10(김철우 선생님)

성경퀴즈대회

▲ 금상
하헌재(1-7) 황민호(2-1)
▲ 은상
김승태(1-10) 최희국(2-7)
▲ 동상
김영서(1-6) 박병민(2-8)

▲ 응원상
1-3(전수진 선생님)
2-5(이링구 선생님)

1학기 교내 수리 창의력 대회

▲ 금상
이세정(1-11) 이재준(1-5)
안형주(2-1) 서재현(2-7)
고재형(2-10) 권용학(3-1)
백승엽(3-7) 임준영(3-11)
▲ 은상
정재홍(1-6) 장민우(1-1)
오유민(1-1) 우상우(1-8)
박상은(2-1) 육현수(2-2)
김형석(2-6) 박나현(2-7)
장효성(2-6) 채성모(2-6)
김민혁(3-6) 김현중(3-3)
김한주(3-9) 주진영(3-8)
방재한(3-10) 박종현(3-7)
▲ 동상
박지호(1-2) 이의정(1-11)
김동규(1-5) 오민혁(1-11)
이민호(1-7) 오세훈(1-9)
박진용(1-5) 김재형(1-9)
이형철(1-5) 김영서(1-6)
손지후(2-2) 정우진(2-2)
장호재(2-5) 박성우(2-5)
정태영(2-7) 이정훈(2-9)
한사무엘(2-8) 주상현(2-11)
이옥구(2-7) 박우진(2-9)
이중혁(2-10) 정찬진(2-10)
김태현(3-1) 조선용(3-3)
이창민(3-6) 지형근(3-1)
김성훈(3-2) 박창준(3-11)
조재한(3-10) 고지오(3-11)
하태준(3-9) 김충의(3-8)
이승구(3-9) 김준석(3-10)
노종혁(3-8)

▲ 장려상
고판석(1-4) 김민우(1-7)
임형욱(1-10) 이승준(1-5)
김규엽(1-4) 박기원(1-1)
박건희(1-2) 박장혁(1-9)
박인철(1-10) 함윤태(1-7)
김동훈(1-11) 이상준(1-4)
정세연(1-8) 민지홍(1-1)
이창주(1-7) 노현우(1-10)
문준호(1-11) 송인준(2-4)
홍준수(2-5) 김원정(2-2)
김우진(2-3) 김경일(3-3)
박수하(2-5)최규호(2-1)
이진호(2-4) 김경민(2-2)
유재성(2-1) 정준교(2-6)
박순성(2-9) 구동욱(2-10)
최희국(2-7) 정누가(2-8)
진우빈(2-8) 유태영(2-9)
조동명(2-10) 허동민(2-10)
김창수(2-11) 정재웅(2-10)
하승원(2-11) 조성관(2-6)
강희범(3-5) 박정현(3-6)
공영진(3-1) 김재민(3-2)
안태현(3-3) 김효민(3-5)
엄지용(3-4) 김윤수(3-5)
박영호(3-8) 김준영(3-11)
최희원(3-9) 오명찬(3-9)
문경환(3-11) 조은기(3-11)
고용수(3-9) 임건탁(3-11)
이승환(3-7) 손민철(3-9)
안동준(3-10) 홍명기(3-10)

1학기 과학창의력대회

▲ 금상
임준영(3-11, 물리)
주진영(3-8, 화학)
조재한(3-10, 생명과학)
배영현(3-10, 지구과학)
▲ 은상
김한주(3-9, 화학)
이승환(3-7, 화학)
박종현(3-7, 생명과학)
조근희(3-8, 생명과학)
정재필(3-8, 지구과학)
▲ 동상
신희찬(3-7, 화학)
방재한(3-10, 화학)
박창준(3-11, 화학)
오명찬(3-9, 생명과학)

김민기(3-9, 생명과학)
노종혁(3-8, 생명과학)
임지환(3-10, 생명과학)
유민호(3-9, 생명과학)
김병호(3-9, 지구과학)
▲ 장려상
홍명기(3-10, 화학)
이승구(3-9, 화학)
김종현(3-11, 생명과학)
김준석(3-10, 생명과학)
이상욱(3-10, 생명과학)
하태준(3-9, 생명과학)
필감성(3-11, 생명과학)
노동휘(3-9, 생명과학)
김종우(3-9, 지구과학)

한자경시대회

▲ 금상
이현우(2-5)
▲ 은상
육현수(2-2) 김연준(2-2)
▲ 동상
이종원(2-5) 노호준(2-1)

<은행나무> 제9호 활동 기자 ⇒ ♡3학년 강희범 / 2학년 이학빈, 최현준 / 1학년 문진현, 하현수, 김경민 기자♡